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박 장 식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중에서 종족집단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가장 민감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미얀마정부는 영국에서 독립한 초기부터 연방제의 형태로 다양한 종족집단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고자 정책적으로 고려해 오고 있다. 몇몇 종족집단이 연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얀마는 표면적으로 국민통합을 유지하고 있고, 종족분리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종족문제는 미얀마의 향후의 정치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현재 연방제하에서 정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버마족은 다른 소수종족집단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어 왔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적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종족간의 관계에서 오는 분제도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영토개념이 불명확했던 전통적인 왕조시대에서 식민지 지배를 거쳐 새로운 개념의 국민국가에 속하게 된 여러 종족집단들은 종족성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 이르러 상호 갈등을 표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글은 종족분쟁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종족집단의 개념을 살펴 보고, 분쟁의 요인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종족성의 변화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I. 머리말

동남아시아는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뉜 지형적 특수성과 왕조시대에서 식민지배기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립되어 온 독특한 역사의 다채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족집단(ethnic group)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세계이다. 다양성은 바로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가장 큰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티벳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등에 속하는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로 나뉘져 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라는 세계의 3대 종교가 병존하고 있다. 흔히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다양성을 모자이크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현재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는 언어, 문화, 전통생활방식 등의 면에서 서로 다른 많은 종족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그렇게 많은 종족집단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합된 국민국가(nation-state)를 건설하려는 문제에 직면해 오고 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종족집단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1 '미얀마'라는 국명은 1990년 6월 18일 현 군사정부(SLORC)에 의해 국명 영문표기가 'The Union of Myanmar'로 바뀌면서 등장하게 알려져 있지만, 실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버마어 표

가장 민감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얀마는 연방제의 형태로 다양한 종족 집단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고자, 종족문제를 독립이래 국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고려해 오고 있다. 몇몇 종족집단이 그러한 연방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얀마는 표면적으로 국민통합을 유지하고 있고, 종족분리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종족문제는 어쩌면 정치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있다. 이런 연방제하에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버마족(Burman)은 다른 종족집단과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적 과정이 반영되고 있으며 종족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볼 때 다종족국가인 미얀마는 퍼니발(Furnivall, 1939)이 묘사하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공존하지만 융합되지 않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²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퍼니발이 본 복합사회는 식민지 국가의 특질이었다고 하더라도, 독립 후 상호간에 공통적인 유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여겼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Anderson, 1983)로서의 국민국가내에서 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리치(Leach, 1970)의 연구에서 알려진대로 미얀마에서의 종족집단의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종족성(ethnicity)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이 글에서는 나타낼 것이다. 영토경계개념이 불명확한 전통적인 왕조국가에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국민국가로 정치체제가 바뀌어 지면서 미얀마의 국가경계안에 속하게 된 여러 종족집단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상호 갈등을 표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속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가정책에 반하는 소수종족의 수많은 반란 세력의 출현은 오랜 기간동안의 군부지배로 인한 정치·경제적 정체와 함께 미얀마의 국가통합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얀마의 장래는 종족집단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국민국가의 탄생이래 종족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오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종족집단의 실체와 종족분쟁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의 공식 국명으로 존속해 온 명칭이다. '미얀마'라는 말은 '버마'의 문어체 단어이다(버마어에는 구어와 문어의 확연한 구별이 존재함. '미얀마'의 자세한 어원은 Yule and Burnell(1985:131)을 참조할 것). 이 글에서는 버마족을 지칭하는 용어인 '버마'(Burma)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거주민 전부(국민)과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사용하였다.

2 퍼니발은 복합사회를 "하나의 정치단위속에서 서로 이웃하여 생활하고 있으면서 상호 혼합되지 않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또는 사회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Furnivall, 1939:446)

II. 종족문제의 일반적 배경

1. 연방구조와 종족분포

미얀마연방의 총인구는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4천1백 만명에 이르고 있다(MPF, 1992:9). 미얀마는 분명히 다종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구성원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종족별 인구상황이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종족별 인구조사를 1931년 이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³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현재 정확한 종족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미얀마의 국가경계안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집단의 수는 적어도 67개 이상이라고 한다(Klein, 1992:67). 그러나, 미얀마의 종족집단을 크게 분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수인 버마족과 소수종족으로 까잉족(Kayin, 혹은 까렌족 Karen), 산족(Shan), 까친족(Kachin), 몽족(Mon), 친족(Chin), 까야족(Kayah), 여카잉족(Rakhine, 혹은 아라칸족 Arakan)등으로 나눈다. ‘미얀마연방’ (The Union of Myanmar) 이라는 현 국명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미얀마는 앞서 언급한 종족집단들의 사치제를 표면상으로나마 인정한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74년 헌법개정에 의해 설치된 현 미얀마의 행정구획을 살펴보면,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7개의 管區(division)로, 타종족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7개의 州(state)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7개의 주는 모두 국경지대에 접하고 있어, 미얀마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7개의 관구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지형적으로 관구는 아이워디(Irrawaddy)강의 하류와 중류에 걸친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소수종족집단의 거주지는 대부분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의 명칭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종족의 명칭을 따서 붙이고 있는데, 여카잉주, 친주, 까친주, 산주, 까야주, 까잉주, 몽주 등이 그것이다. 각 종족집단은 ‘주’라는 행정구획속에서 각각 행정, 정치단위로 인식되어 진다. 유일하게 언어사용자별 인구조사를 실시한 1931년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14,647,497명 중에 버마족(여카잉족 포함)이 약 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까잉족이 9%,⁴ 산족이 7%, 친족과 몽족이 각각 2%, 까친족이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Andrus, 1948:29).⁵ 특히, 산족과 까잉족은 백만명을 넘

3 미얀마내의 다양한 종족집단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종족별 인구조사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다양한 종족집단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발힘으로서 생길 수 있는 국민통합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Allott, 1985:131).

4 1931년 통계에는 빠오족, 까야족 등 오늘날 별도의 종족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위집단들을 모두 포함하여 1,341,066명이었다. 그러나, 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까잉족의 인구는 약 4백5십만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런 숫적 차이의 이유는 영국의 조사에는 불교도 까잉족과 버마어를 사용하는 델타지역 거주 까잉족을 버마족으로 간주하였고, 동쪽의 험한 지형적 이유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종족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Smith, 1991: 30).

5 이 통계에는 인도인 7%, 중국인 1% 등 이민종족의 비율도 포함되어 있지만, 독립직후나 1962년 쿠

는 인구를 지니고 있던 하지만, 전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에 비하면 소수종족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면에서 볼 때, 주와 관구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형식적으로 각 종족집단은 국가행정체계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개의 관구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은 정치·행정력의 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버마족외의 종족집단은 소수종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행정면에서 본 관점이다.

각각의 주에는 그 주의 명칭을 지닌 종족집단이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로 산주를 살펴보면, 1955년의 통계에는 산족외에 26개의 종족집단이 그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BSPP, 1970b:37-38). 이 산주에서는 산족이 다수종족이며 당연히 26개의 종족집단은 소수종족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버마족도 역시 모든 주에서 소수종족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며, 타종족집단도 특정 주에 제한되지 않고 분포되어 있고 버마족이 다수인 관구에서도 앞과 비슷한 종족분포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까잉족의 경우를 보면, 전체 까잉족의 25%만이 까잉주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미얀마 하부지역(Lower Burma)⁶에서 버마족이나 몽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의 정치적, 지리적 개념은 반드시 종족집단의 실제적인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존관계의 역사적 고찰

미얀마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현재의 주가 위치해 있는 지역-소수종족의 거주지역-은 어떤 한 권력에 의해 늘 통제되어 온 것은 아니다. 여카잉주는 버마족의 일부가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여카잉산맥으로 인하여 버마족과의 빈번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정치, 문화적으로 약 천년동안 인도 뱅갈지역과 관계를 맺어 온 독자적인 왕국이 건설되었던 곳이다. 여카잉족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이슬람문명과 접촉을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교문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서쪽과 북쪽에 이르는 국경부근의 고원지대에는 친족, 까친족, 까잉족 등이 주변정세와 관계없이 자치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북부의 고원과 북동쪽 산고원의 강유역은 타이족(Tai)의 한갈래인 산족의 거주공간인데 그들은 통일된 큰 왕국을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소브와(sawbwa)라는 봉건적 영주에 의해 형성

데타 이후 내원정부의 산업국유화정책에 의해 본국으로 대부분 귀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6 영국인들은 미얀마의 중앙평원지역을 'Burma Proper'라고 부른다. 이 지역을 다시 상부(Upper Burma)와 하부(Lower Burma)로 나누는 것은 기후의 차이와 영국의 진출에 따른 역사적 사건(미얀마·영국전쟁)에 유인한다. 지금의 뻬에(Pyay, Prome)와 따웅우(Toungoo)를 가로로 있는 선을 중심으로 왼쪽지역을 상부, 아래쪽을 하부지역으로 나눈다. 왕조시대때의 버마족의 중심지는 비강(Pagan), 만들레(Mandalay)를 포함한 상부지역이었고, 하부지역에는 버구(Pegu)와 애야워디강 델타를 중심으로 몽족, 까렌족, 버마족 등이 주로 거주하였다.

되는 자치적 소왕국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원지역에 있어서도 버마족이 모든 지역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년전까지만 해도 몽족의 세력하에 놓여 있었던 하부지역은 떠둥(Thaton), 버구(Pegu)를 중심으로 하여 버마족의 왕조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몽족이 이미 정착하였던 곳이었다. 11세기 아노러타(Anawratha)왕의 몽족정복은 테라와다(Theravada, 상좌부)불교와 문자, 해상로 등 귀중한 문화, 경제적 유산을 버마족에게 이식시켜 주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몽족은 버마왕조의 세력약화를 틈타 자신의 왕조를 재건설하기도 했다.

11세기 버강(Pagan)왕조이후로 미얀마의 지배종족으로 등장하게 된 버마족의 지위는 주변 타종족집단에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영토지배의 영역은 애야워디강 중류지역 즉, 짜육새(Kyaukse)평원을 중심으로 한 상부지역(Upper Burma)에 국한되어 있었다. 상부지역에서조차도 1287년 봉고족의 침입으로 버강왕조가 멸망한 이후 거의 14세기 후반까지 간헐적이거나 산족의 지배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족은 그들 고유의 종족적 전통을 버마족에 행사했다기 보다는 압도적인 버마족 왕조의 전통에 따라 지배하였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산족 지도자들조차도 혈통을 버마족의 왕가에 귀속시키기도 했다(Hall, 1974:28-30).

미얀마의 현 국토는 영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직후에 하나의 정치단위로 확립된 것이었다. 영국은 다수종족인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평원지역(Burma Proper)을 직접통치하에 두고, 변방지역(frontier areas)은 각 종족집단의 지도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식의 간접지배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소수종족의 전통적인 자치제도는 독립전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연방은 기본적으로 미얀마내의 모든 종족이 공존할 수 있는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출범하였다. 1947년 제정된 헌법은 그런 연방제의 취지를 띄고 있었으나, 주 자치제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 누(U Nu)정부의 행정능력 무능에 반발하여 1962년 네 윈(Ne Win)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미얀마의 모든 주는 연방탈퇴의 권리와 상당부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 자치제 실현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연방제 실현이라는 1974년 헌법의 내용과 달리 네 윈정부의 출범은 오히려 미얀마 전 지역을 하나의 행정체제로 묶어 두었다.

현재 미얀마내에서 버마족의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무장한 소수종족집단은 약 30개에 이르고 있다(Smith, 1991).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부장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집단들이 표방하고 있는 주장도 모두 일치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들의 목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중앙정부와의 정치적 이념의 상충, 종족집단의 완전한 독립 요구, 경제적 이익추구, 단순히 유리한 정치적 입지 확보의 목적 등—을 띄고 있고, 버마족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연합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소수종족의 반정부활동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Ⅲ. 종족집단의 개념과 분류

다양한 종족집단의 모자이크를 해체하여 국민(nation)이라는 공통의 귀속의식으로 동화 내지는 통합하는 것이 근대화된 정치체제의 안정에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 종교, 종족 등으로 분열된 하위집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이 근대화 과정 속의 국민국가 내에서 사라져 버릴 운명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대화가 종족집단의 동화 혹은 해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참가나 생활향상을 찾아서 종족집단의 활성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특히 국민통합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서구국가들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⁷ 이는 국민국가의 탄생으로인해 다양한 국가구성요소가 자연히 통합될 것이라는 가정이 더 이상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박은경, 1987:61).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종족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⁸

연방이란 정치제도 속에서 다양한 종족집단을 통합하려는 미얀마에서도 근대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족집단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쉽사리 정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 전후 종족집단간의 통합을 최대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화하려고 노력해 왔던 미얀마정부는 다양한 종족집단의 요구에 편승치 못하고 모순과 불합리속에서 인위적이고 무리한 통합을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 종족집단에 대한 현실적 이해없는 이 지역에서의 종족분쟁이나 갈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1. 종족집단의 개념과 정의

버마족의 소수종족에 대한 개념은 모든 종족집단이 특정한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통해 공동운명을 지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사회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현행 연방제는 그런 가정의 바탕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거주지인 주의 경계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종족집단은 역사적으로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사회의 연방이라는 개념은 갈등없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제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종족집단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카잉족의 경우처럼, 모든 종족집단의 실질 거주지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한 종족집단은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근거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리치(Leach, 1970)의 지적대로 그런 가정은 적어도 미얀마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입증되지 못할 것이다.

7 Ethnicity론의 기초 배경을 제공해주었던 서구 국민국가의 역사적 재검토를 위해서는 Tilly(1975)를 참조할 것.

8 종족성 이론연구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은경(1987), Barth(1969), Glazer and Moynihan(1975).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종족집단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족성의 해석을 둘러싼 두가지의 측면—문화현상면과 정치이익면—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현상의 입장은 언어, 종교 등 종족집단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치이익의 입장에서는 종족집단간의 차이를 현저하게 만드는 권력, 부 등의 통제를 둘러싼 대립 즉, 정치과정을 강조한다(加藤, 1990:216).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종족집단의 구성원 및 종족집단이 의존하고 있는 기반이 역사속에서 두가지 측면간의 변동하는 균형관계 위에서 성립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적으로 갖게되는 혈연, 언어, 종교, 관습, 거주지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소, 즉 근원적 유대(primordial attachments)⁹는 종족성 형성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으로 이뤄지는 종족성은 자연 발생되는 것이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성격을 띄게 되며, 이런 문화적 유산을 통하여 종족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Keyes, 1976:205-208). 이것은 종족집단을 그 구성원이 근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변하는 문화적 특성으로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종족성은 문화현상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리치(Leach, 1970)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단위로서의 종족집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는 집단간의 사회적 이화(異化)속에서 형성되어진 사회적 총합체로서의 종족집단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바쓰(Barth, 1969)는 종족성연구의 관점을 사회구조나 문화현상에서 사회과정과 인간행위로 옮기면서, 종족집단의 경계는 문화적 내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닌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는 학설을 내세웠다. 그래서 종족집단은 더 이상 문화적 토대 위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리치의 결론에 따르면, 한 종족은 한 문화로 구성된다는 생각은 적어도 미안마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Leach, 1970:281).

이러한 종족성 개념을 둘러싼 배경을 이해한다면 종족집단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종족집단이란 다른 종족집단 혹은 전체사회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고 의식화된 사회적 변주 혹은 집단이다. 또한, 그런 종족집단의 귀속의식을 지탱하는 것은 특정의 형질적 특성(피부색 등), 언어, 출신지역, 종교, 역사, 문화 등에 근원을 둔 유대의 공유인 것이다. 결국 종족성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경험에 직면한 구성원들의 적응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Keyes, 1979:6).

따라서 종족집단은 다양한 사회환경속에서 발생하는 타 종족집단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문화적 유대에 종족성의 바탕을 두고 지속하기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관심사에 보다 중점을 두고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족집

9 종족성형성의 귀속적 특징인 근원적 유대(primordial attachments)에 대한 자세한 것은 Geertz(1963)을 참조할 것.

단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미얀마에서의 종족집단의 분류

동남아시아에서의 종족분류는 전통적으로 언어계통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¹⁰ 미얀마에는 크게 3개의 어족에 속하는 언어사용자가 있는데, 중국-티벳어족(Sino-Tibetan), 몽-크메르어족(Mon-Khmer, Austroasiatic), 타이-까나이어족(Tai-Kadai)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티벳어족(중국어계와 티벳-버마어계로 나뉘짐)인데, 티벳-버마어계에 속하는 종족으로는 버마족(여카잉족 포함), 까친족, 까잉족, 친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몽-크메르어족에는 몽족, 와족(Wa)이 있고, 산족은 타이-까나이어족에 속한다. 193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미얀마에는 13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rus, 1948:29). 그러나 이러한 언어에 의한 분류방법은 변화하는 사회환경 내에서 종족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한다.

Kunstadter는 동남아시아의 종족을 주요(다수)종족, 도시의 소수종족, 지방의 소수종족, “부족”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1967:15). 그의 4분류에 속하는 미얀마의 종족들을 알아 보면, 먼저 미얀마의 다수종족으로는 국민국가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버마족이 여기에 속하며,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보다 숫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열세에 있는 인도인이나 중국인(화교)은 도시의 소수민족에 속한다. 지방의 소수민족으로는 산족, 몽족, 여카잉족이 여기에 속하며, “부족”의 분류에는 까잉족, 까친족, 친족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종족분류의 기준으로서 종족의 생태면, 문화의 정도, 언어와 교육, 정치조직, 경제, 인구분포와 동태라는 다면적인 검토를 거쳐 설정한 것이다(1967:16-17).

지방의 소수민족과 “부족”의 분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지만,¹¹ 비교적 복잡한 종족집단의 성격을 잘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도 집단간의 상호 접촉과 관계에 따른 종족집단의 다양한 변화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한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부족”형태에 머물고 있던 종족이나 일반적으로 대분류의 소수종족에 속하는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던 종족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목을 받고 불분명하던 종족 귀속의식을 설정하여, 타집단과의 종족성의 경계를 분명히 그으려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까친족의 사회는 반드시 균질적이고, 단일의 가치관, 동족의식 혹은 공동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통합된 사회는 아니다. 또한 까친족의 분포도 반드시 현 미얀마의

10 언어계통의 분류에 의한 종족들의 설명은 LeBar et al.(1964)를 참조할 것.

11 양자간의 분류를 설정하는 기준에는 서로 중첩되는 면이 많고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주환경, 문화, 종교, 언어,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岩田, 1971:27).

국경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 운남성(雲南省傣族景頗族自治州) 및 인도 북동부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까친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의 범위에는 징포족(Jingphaw), 마루족(Maru), 라시족(Lashi), 아찌족(Atsi) 등이 포함된다(BSPP, 1967a:26). 언어계통상으로 볼 때 징포어는 까친족의 다른 하위집단의 언어와는 다르다. 베네딕트(Benedict)는 중국-티베트어족을 분류하면서 티베트-버마어계를 7개의 언어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징포어는 까친어군에 마루어, 라시어, 아찌어 등은 오히려 버마어와 같은 버마-폴로어군(Burmese-Lolo)에 포함시키고 있다(1972:4-8). 리치(Leach, 1970)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까친족의 사회구조도 징포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층적, 전체적 원리에 의한 굼사(gumsa)형 사회와 기타 종족사회에서 존재하는 민주적, 평등적인 원리에 의한 굼라오(gumlao)형의 사회가 상호변화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까친족이란 용어는 순수하게 징포족을 일컫는 명칭이며, 징포족과 사회,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부족형태의 종족은 산족과의 상호 관계에서 정의되는 광의의 까친족 개념속에 포함될 뿐이다.

까잉족의 하위 종족으로 분류되던 까야족은 원래 특정한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집합되어 있지 않은 까잉족과 달리, 산족의 영향을 받아 산족에서 볼 수 있는 영주(혹은 족장, sawbwa)를 중심으로 한 사회 조직체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까잉족이 기독교로 개종한 반면 이들은 불교를 고수하고 있고 연방제에 불만을 품고 발생한 1949년 까잉족의 폭동으로 인하여 까잉족에 분류되기를 꺼려했던 것이 종족분리 요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Lehman, 1967:99-100). 까야족의 분리는 종족집단을 근원적으로 규명하는 문화적 유대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예인 것이다.

미얀마 동쪽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몽-크메르어족에 속하는 와족(Wa)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부족형태의 종족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라는 아편재배지가 그들의 거주지역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과거 화전농사가 주업이었던 이들은 지금은 아편재배가 주업이 되어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는 종족집단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정치이념의 차이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얀마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urma, CPB)¹²은 1989년 폭동 이후 분열되었으나, 그 후 와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경부근 산주의 북동쪽에서 주위의 소수종족을 중심으로 재집결하였다. 와족은 CPB의 주요 구성원에 대부분 속해 있었으나, 국제적인 아편재배 규제에 인하여 압력을 받고 있는 현 미얀마의 중앙정부와 단독 협상을 벌여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대신 CPB의 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

리만(Lehman)은 미얀마의 종족집단을 집단간의 관계속에서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위치를 지닌 역할체계(role system)로 보고 있다(1967:106-107). 따라서, 친족(Chin)의 사회와 문화는 평원지역의 버마족 문명과의 상호관계에 따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12 CPB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Lintner(1990)를 참조할 것.

한다(Lehman, 1963). 초기의 버마족은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까두족(Kadu)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친족이 해준 것으로 여겨서, “형제, 동료”의 의미로 “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Luce, 1959). 이처럼 소수종족집단은 단순한 하나의 귀속의식 보다는 여러 역할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Lchman, 1967: 107).

이처럼 미얀마에서의 종족분류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민족이나 종족의 의미를 지닌 버마어는 “lu-myo”(사람의 종류)인데, 이 단어는 일정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현재에는 미얀마내의 7개의 소수종족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는 있는데, 이것은 버마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라 종족집단이 분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IV. 종족성의 변화와 종족분쟁

1. 다수종족-소수종족 사회

복합종족국가의 종족관계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발견되지만, 가장 현저한 것은 에스만(Esman)이 말하는 「중심-주위」형(center-periphery pattern)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집단이 정치체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자원이나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주변의 소수집단을 지배하는 경우를 가르킨다(Esman, 1975:393-394). 동남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지배종족은 저지대의 평야, 큰 강의 유역, 델타 혹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관개지에서서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예가 많고, 주위의 소수종족은 고원, 산지에 주로 거주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종족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얀마에서는 버마족이 애아워디강 중하류지역의 평원지대에 거주하고, 그 평지를 둘러싼 국경지역에 연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원, 산지가 여카잉족, 까친족, 친족, 까잉족, 산족, 까야족 등 소수종족의 거주지로 되어 있다.

이런 다수-소수종족 사회에서는 다수종족의 지위나 제도에 의해 종족집단간의 교류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종족은 언제나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받을 수 밖에 없다(Barth, 1969:31). 소수집단은 이런 불리한 구조속에서 문화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족관계에 있어서 상호 협조관계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심-주위형의 종족관계에 있는 지배종족은 대체로 주변의 소수종족집단이 서서히 변화하여 결국 지배집단속에 동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Esman, 1975:400). 따라서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규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주위의 소수종족집단은 그런 변화를 원치 않고, 또한 동화를 통한 종족성의 소멸을 바라지 않는다. 게다가 소수종족의 거주공간의 중요성과 정치, 경제적 입지 때문에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모든 종족집단들의 정치적 공존을 표방하는 미얀마연방의 성립 이후로 버마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채택하는 등 국가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버마화’가 추진되어 왔다. 1947년과 1974년의 헌법은 버마족에 의한 중앙정부와 주변의 소수종족에 대한 권력의 분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버마족은 소수종족의 권리를 인정치 않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주의 경계안에는 상당한 숫자의 버마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수종족만의 주거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각 소수종족집단은 자신들의 종족성 확보와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끊임이 없는 정치불안과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종족성의 변화

(1) 버마족의 문명세계와 종족성

리치(Leach, 1970)는 미얀마 동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까친족과 산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산족이 까친족으로 될 수도 있고, 적은 수이지만 까친족이 산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상호관계를 지닌 복수사회체계를 동시에 분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족집단은 문화적 존재이기 보다는 사회적 존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종족성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동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사회적 환경은 종족성 자체를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니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다수인의 사회속에 소수인이 동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복잡한 집단의 대두는 종족성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다수종족인 버마족은 일정한 영토안에서 주위와 완전히 고립된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 아니라, 11세기부터 시작되는 왕조국가의 역사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여러 소수종족들과 많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따라서 버마족의 종족성도 혈통이나 문화적 유대에 근거한 불변의 순수한 종족정체성(ethnic identity)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버마족의 종족성은 인도분명에서 배운 왕권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왕조전통과 상좌불교문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버마족의 문명세계는 수세기에 걸쳐 타 종족집단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치 주도권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버마족의 문명세계는 미얀마의 하부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던 몽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었다. 가장 초기에 정착해 있었던 뿌족(Pyu)에 이어 A.D. 5세기 경 미얀마의 하부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몽족은 인도와의 해상교류를 통해 일찌기 상좌불교와 인도문자를 받아 들여 고도의 문명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8-9세기 경 지금의 티베트지역에서 남하한 것으로 알려진 버마족은 11세기에 지금의 버강(Pagan)에 왕조를 건설하고 남쪽의 몽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불교문명과 문자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불교문명은 버마족의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시켜 주었고 새로운 버마족

의 문명세계를 형성시켜 주었다. 버마족은 역사를 통하여 다른 종족과의 정복과정에서 그런 문명세계를 확대시켜 왔다. 이처럼 버마족의 문명은 버마족 자체의 것이 아닌 인도의 문명에서 봉족을 거쳐 유입된 것이므로 다른 종족집단보다 우위에 접할 수 있는 지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고도의 문명세계를 접한 버마족은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배에 따른 종족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명이 된 '미얀마(Myanmar)'라는 어휘도 12세기 버강왕조 시대의 비문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미얀마'¹³는 불교경전에 언급되는 지구상의 최초의 거주민인 브라흐마(Brahma)를 의미하는데, 버마족은 이 명칭을 자신들의 종족명칭으로 사용하였다(Ba Han, 1965:35). 이것은 시기적으로 몽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후였기 때문에 버마족의 우위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 틀림없다. 버마족의 역사적 사건을 기술해 오고 있는 각종 연대기(Maha Yazawin)에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종족적 자부심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연대기 그 자체는 역사적 사건을 사실대로 기술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기록함으로써 버마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Shway Yoe, 1989:435-436).

이렇게 봉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버마족은 몽족을 동화시켜 나갔고,¹⁴ 13세기 후반 몽고의 침입으로 버강왕조의 몰락과 함께 혼란해진 미얀마의 상부지역을 장악한 산족의 일부도 필연적으로 버마족의 문명세계에 동화되어 갔다. 이렇게 왕조의 역사를 통해 다 종족집단과의 계속적인 동화와 혼합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버마족의 종족성은 다종족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버마족의 전통과 문명은 지금까지도 소수종족을 동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서구문명과의 접촉

이러한 버마족의 종족성은 미얀마에서의 영국지배의 시작과 더불어 다양한 종족집단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지배는 서구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세계를 미얀마에 이식시켜 기존의 버마족의 문명세계와 충돌하는 양상을 만들어 냈고, 다수와 소수종족별 분리통치 정책에 따라 종족간의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왕조전통의 상실로 인한 버마족의 위기감은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버마족 중심의 영국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수종족집단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종족은 까잉족이다. 까잉족은 분포지역이 애야위디강 하구지역과 태국국경지대의 산간지역 등 다양하며, 하위집단의 분류도 복잡

13 일반적으로 브라흐마(Brahma)에서 '미얀마'는 분어체 표현으로, 구어로는 '버마'란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다(Tha Myak, 1961:216).

14 몽족은 버마족에 새로운 문명세계를 접하게 해줌으로써 버마족의 종족성에 결합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며, 종족성 회복을 꾀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주장이 있다. 자세한 것은 Bauer(1990)를 참조할 것.

한 편이다. 특히, 왕조시대를 거쳐 오면서 애야위디강 하류지역 등 평원지대에 거주했던 까잉족은 대부분 버마족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반정부 조직을 결성하고 있는 까잉족의 대부분은 태국 국경지역에 접해있는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얀마의 종족별 인구조사의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인구수를 밝힐 수 없지만, 미얀마에는 약 220만명, 태국에 약 24만2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jah, 1990: 102). 하위집단에는 스고 까잉족(Sgaw Kayin), 빠오족(Pa-O), 까잉니족(Kayinni, Karenni), 브웨족(Bwe), 빠다웅족(Padaung)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지닌 종족은 스고 까잉족이다(BSPP, 1967b:22-26). 그 중에서 까잉니족은 까야족(Kayah)¹⁵으로 명칭을 바꿔 더 이상 까잉족에 분류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까잉족의 대다수는 미얀마연방에 귀속하여 있지만, 기독교도가 대부분인 까잉족의 일부에 의한 까잉족 분리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미얀마연방에 포함되길 거절하고 까잉민족주의를 바탕으로한 까잉 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이라는 정치 조직체와 까잉 민족해방군(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라는 군대를 조직하고, ‘고톨레(Kawtoolei)’라는 국명을 가진 까잉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까잉족의 분리운동의 발단은 영국이 국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종족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버마족과 타 종족들을 분할 통치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白石, 1984:315-316). 카이스(Keyes)는 미얀마에서의 까잉족 분리주의의 진전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은 서구 문명의 접촉에 따른 기독교 선교활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1977:56). 기독교 전파에 따라 학교 등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지역적인 조직체가 구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Rajah, 1990:110).

서구문명은 비단 까잉족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소수종족 대부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1947년 제정된 연방헌법 제21조 1항에는 미얀마연방의 다수가 신봉하는 불교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CAB, 1948:4). 물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정령숭배 등 타 종교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문이 있긴 하지만, 불교의 지위에 대한 국가의 공식 인정은 이 지역내 타 종교도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우 누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58년 불교를 국교화하고(1974년 헌법에서는 불교의 국교로서의 지위를 삭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시도하였다. 우 누는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버마족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왕조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정통성을 찾으려는 수단으로 불교를 국교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세기 이전과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간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 구조 외에도 왕조시대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인 상가(sangha, 승단)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Taylor, 1987: 289-290).

이와 같은 버마족의 문명세계와 서구문명의 대립은 기존의 종족집단의 종족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더 이상 버마족의 문명세계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문화

15 1950년 2월 헌법 개정으로 주의 명칭과 종족의 명칭을 까야로 변경하였다(BSPP, 1970a:17).

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개념을 심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화적 갈등은 특별히 소수종족에 대한 버마족의 정신적 우월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지배에 대한 정통성 부재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3. 종족분쟁의 상황

현재의 미얀마국경안에 거주하는 모든 종족집단은 이 지역의 원주민은 아니다. A.D. 9세기를 전후로하여 중국에서 남하하여 내려 왔거나,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종족들이기 때문이다. 11세기 버강(Pagan)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확장을 시작한 버마왕조는 미얀마하부지역의 봉족을 정복함으로써 버마족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몽족의 고도의 문명세계가 버마족에게 그대로 이식되면서 타 종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우위의 문화의식속에서 자생한 그들의 왕조 전통은 다른 종족들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조시대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한정된 지배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마족과 다른 종족과의 관계는 당시의 주도 세력의 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분히 비확정적 변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런 변수는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점차 고정되어 각 종족집단의 종족성을 확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또한, 식민지 지배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인 경계가 종족형성에 변형을 가져다 주었고, 그러한 경계설정이 반드시 국민국가에 의해 설정된 행정구획과 이질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종족문제라는 새로운 갈등의 구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종족집단, 종족성의 개념화는 제 2차세계대전 이후에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이지만, 종족집단의 현상 또는 의식이 동남아시아에서 현저히 나타난 것은 식민지시대에서 비롯된다. 식민지시대는 종교, 언어, 피부색이 다른 백인기독교도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그 때까지 상호교섭을 갖지 못했던 종족집단도 포함하여 광범위한 식민지의 정치통합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인위적 국경선의 확정에 의한 정치적 통합은 여러 종족집단이 좋은 싫든 정치·경제적으로 경쟁해야 할 상황을 형성하였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종족집단간의 교류, 도시와 촌락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식민지 착취의 과정에서 중국인, 인도인으로 대표되는 외래동양인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인종, 종교, 언어면에서 토착인과 문화적 특징을 달리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식민지주의 특징은 문화현상으로서의 종족성의 다양성과 그 농도를 증가시켰고, 게다가 서로 다른 종족집단이 만남으로써 경쟁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한, 정치이익을 달성수단으로 하는 종족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도 채택하였다. 예로 식민지사회를 백인, 외래동양인, 원주민 등 종족적인 요소로 차별적으로 분류하여 이것에 의거해 사법·행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원주민 족장을 매개로 한 간접통치 혹은 분할통치 등의 정책을 통하여 원주민사회 내부의 종족요소를 분할지배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加藤, 1990:222). 이것은 버마족과 까잉족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까잉족은 버마족을 압제자로 보는 반면, 버마족은 까잉족이 영국의 미얀마군대에 다수가 속하여 독

립운동 탄압에 한 몫을 차지한 영국 제국주의의 아류로 치부하고 있다(飯島, 1990:271).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미얀마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상반된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소수종족들은 1947년 산주의 팽롱(Panglong)에서 개최된 아웅상(Aung San)의 주도하에 신생 국가의 정치구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팽롱회담(Panglong Conference)¹⁶에서 정치통합의 달성과 새로운 국가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자치제를 행사할 수 권리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장차 있을 헌법제정과 연방참여에 대한 확신을 심겨 주었던 아웅상에 의해 추진되었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했었다.

반면에 버마족들의 지도자들 중에는 종족, 문화, 지역별 분할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분할정책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결과라는 것으로 미얀마내의 전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진정한 국민통합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국민문화 창출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미얀마의 다양성은 결국 버마족의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유일한 귀속의식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반파시스트인민연맹(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AFPFL)¹⁷에 속한 우 누를 비롯한 아웅상의 후계자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소수종족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아웅상의 약속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폭동, 반정부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행동¹⁸에 들어 갔고 일부는 중앙정부에 순응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후자의 경우도 서서히 반정부활동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우 누정부, 네 윈정부, 현 군사정부도 소수종족 문제를 버마족의 우위에 의한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의 양상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해졌다. 더우기 중앙정부는 주요 소수종족을 종족집단으로 보고 그 외의 소수종족은 종족집단으로 실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노리는 이들에 의한 반정부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¹⁹

16 이 회담에는 산족, 까친족, 친족의 대표와 당시 버마족을 중심으로 활발히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 하였던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AFPFL)을 대표하는 아웅상과의 모임이었다. 까잉족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회담을 거부하였으나, 일부 옮겨버가 참석하였다(Cady, 1958:543-544). 회담이 열렸던 2월 17일은 현재 미얀마연방의 날(Union Day)로 정해져 있다.

17 AFPFL은 1944년 30인 지사(Thirty Comrades)를 대표하는 아웅상과 공산당을 대표하는 락킨 소(Thakin Soe)에 의해 결성된 버마족 중심의 민족주의자 연합전선이다. 독립 직전 양자는 국가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된다. 공산당은 1948년 이후부터 불법화되어 소수종족들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활동에 들어갔다(Tun Thwin, 1989:58-62).

18 1947년 까잉민족방위기구(Karen National Defence Organization, KNDO)와 1948년 미얀마공산당(CPB)에 의해 발생했던 폭동이 초기의 것으로 들 수 있다.

19 이러한 반정부 활동의 새로운 경향과 조직체의 증가에 대해 자세한 것은 Smith(1991:322-354)를 참조할 것.

V. 맺는말

미얀마의 종족문제는 단순히 국가 구성요소인 종족집단의 다양성에서 자연히 발생했다기 보다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통합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미얀마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지역은 결코 특정 정치, 사회, 문화에 의해 연속적으로 점유되지 않았고, 각 종족집단은 문화적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실제로 존재하는 종족집단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통합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다수인 버마족의 문명세계는 항상 타종족집단을 버마화하는 데 우선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의 종족집단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 문명세계 자체가 다종족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는 그런 버마족의 다종족성을 상당히 약화시켜 놓아서 지금은 타종족에 대해 우위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민지의 경험은 서구문명을 유입케 했는데 이것 또한 종족문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소수종족의 기독교화는 불교와의 대립을 조장시켰고, 결국 버마문명과 서구문명과의 마찰로 번지게 되었다. 이것은 카인족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향후 미얀마의 정국에서 양 문명의 대립은 둔화되기 보다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정부는 국내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쟁을 피할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감한 분제는 소수종족집단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소수종족문제는 국내의 부족적 색채를 띄고 있는 소수종족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주요종족에 반발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한 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버마족에 의한 일방적인 국민국가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에 현 군사정부에 의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종족집단의 종족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93년 6월 8일자 정부 신문인 '미얀마의 빛(Myanmar Alin)'의 보도에 의하면 근대화를 향한 국민통합의 대 전제아래 현행 소수종족의 거주지로 나뉘어져 있는 모든 주를 폐지하고, 종족적 색채를 없앤 새로운 명칭의 행정구획 편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진보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수 많은 변화를 겪어면서 형성되어 온 미얀마의 종족집단들이 지니고 있는 귀속의식을 새로운 정치제도속에 흡수하여 혼란스러운 국가조직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미얀마는 종족집단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족집단을 현실적 인정하는 노력으로 새로운 국민분화를 창출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국가는 앤더슨(Anderson)이 정의하는 대로 고유의 영토개념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가진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며(Anderson, 1983), 더우기 이런 국민국가의 탄생은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인위적으로 그려진 테두리속에서 만들어진 이유로 인하여 도처에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산재하고 정통성도 잃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矢野, 1990:98-99).

〈참 고 문 헌〉

박은경

1987 “종족성 이론의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19:59-92.

Allott, Anna J.

1985 “Language Policy and Language Planning in Burma,” in David Bradley(ed.), *Papers in South-East Asian Linguistics No. 9: Language Policy, Language Planning and Sociolinguistics in South-East Asia. Pacific Linguistics A-67*. pp. 131-154.

Anderson, Benedict R. O’G.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Andrus, J. Russell

1948 *Burmese Economic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a Han

1965 “The Emergence of the Burmese Nation,”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48(2):25-38.

Barth, Fredrik.

1969 “Introduction,” in F. Barth(ed.),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aucr, Christian

1990 “Language and Ethnicity: The Mon in Burma and Thailand,” in Gehan Wijeyewardene (ed.), pp. 14-47.

Benedict, Paul K.

1972 *Sino-Tibetan: A Conspectu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SPP. comp. (미얀마사회주의계획당 편) (버마어)

1967a *Pyidaunzu Myanmanaingan Tainyindha Yinchemu Yoyadalethounzanmya (PMTYY): Kachin* (미얀마연방 종족문화와 전통 관습: 까친족). Yangon: Sapebeikman.

1967b *PMTYY: Kayin* (까잉족). Yangon: Sapebeikman.

1970a *PMTYY: Kayah* (까야족). Yangon: Sapebeikman.

1970b *PMTYY: Shan* (산족). Yangon: Sapebeikman.

CAB (미얀마 제헌의회) (버마어)

1948 *Pyidaunzu Myanmanaingan I Phweoukchoukpon Acheganubade* (미얀마 연방 헌법). Yangon: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ery.

Cady, John F.

1958 *A History of Modern Burm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Esman, Milton J.

- 1975 "Communal Conflict in Southeast Asia," in N. Glazer and D.P. Moynihan(eds.), pp. 391-419.
- Furnivall, J.S.
1939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63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in C. Geertz(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and Africa*. New York: Free Press, pp. 105-157.
- Glazer, Nathan and Daniel P. Moynihan
1975 "Introduction," in N. Glazer and D.P. Moynihan(eds.), pp. 1-26.
- Glazer, N. and D.P. Moynihan, ed.
1975 *Ethnicity: Theory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 D.G.E.
1974 *Burma*. New York: AMS Press.
- Keyes, Charles F.
1976 "Towards a New Formation of the Concept of Ethnic Group," *Ethnicity* 3:202-213.
1977 *The Golden Peninsula*.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79 "Introduction," in C.F. Keyes(ed.), *Ethnic Adaptation and Identity: The Karen on the Thai Frontier with Burma*.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pp. 1-23.
- Klein, Wilhelm, ed.
1992 *Myanmar*. Hongkong: APA Publications.
- Kunstadter, Peter
1967 "Introduction," in P. Kunstadter(ed.), pp. 3-72.
- Kunstadter, Peter, ed.
1967 *Southeast Asian Tribes, Minorities, and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ach, E.R.
1970 *Political System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London: The Athlone Press.
- LeBar, F.K., G.C. Hickey and J.K. Musgrave
1964 *Ethnic Groups of Main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 Press.
- Lehman, F.K.
1963 *The Structure of Chin Societ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7 "Ethnic Categories in Burma and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in P. Kunstadter

(ed.), pp. 93-124.

Lintner, Bertil

1990 *The Rise and Fall of the Communist Party of Burma(CPB)*.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Luce, G.H.

1959 "Old Kyaukse and the Coming of the Burmans,"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42(1):75-109.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MPF), The Union of Myanmar

1992 *Statistical Yearbook 1991*. Yangon :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

Rajah, Ananda

1990 "Ethnicity, Nationalism, and the Nation-State:The Karen in Burma and Thailand," in Gehan Wijeyewardene(ed.), pp. 102-133.

Shway Yoe

1989 *The Burman:His Life and Notions*. (Reprinted from the revised 1910 Macmillan edition). Scotland: Kiscadale Publications.

Smith, Martin

1991 *Burma: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Zed Books.

Taylor, Robert H.

1987 *The State in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Tha Myak, U (버마어)

1961 *Pawrana zaga abidan*(고어사전). Yangon: Hanthawadi.

Tilly, C.

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un Thwin

1989 *The Impact of Political Thought on Burm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930-1948*. Unpublished MS.

Wijeyewardene, Gehan, ed.

1990 *Ethnic Groups across National Boundaries in Mainland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Yule, Henry and A.C. Burnell

1985 *Hobson-Jobson:A Glossary of Colloquial Anglo-Indian Words and Phras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飯島茂(Iijima, Shigeru)

1990 "エスニシティの變化," 坪内良博 編, 『東南アジアの社會(講座東南アジア學 第三卷)』, 東京:弘文堂.

岩田慶治(Iwata, Keiji)

1971 『東南アジアの少数民族』, 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加藤剛(Kato, Tsuyoshi)

1990 “エスニシティ概念の展開,” 坪内良博編, 『東南アジアの社會(講座東南アジア學 第三卷)』, 東京:弘文堂.

白石隆(Shiraishi, Takashi)

1987 “國民統合をめぐる,” 大林太良 編, 『東南アジアの民族と歴史(民族の世界史 6)』, 東京:山川出版社.

矢野暢(Yano, Tooru)

1990 『東南アジア世界の構圖—政治的生態史觀の立場から』, 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Ethnic Groups and Ethnic Conflict in Myanmar

Jang-Sik Park

It seems that the Union of Myanmar is of all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most vulnerable to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ssue of ethnic diversity.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led by the majority Burmans, has tried to integrate a variety of ethnic groups in federal institutions since independence. As the minorities have claimed greater autonomy, the result has been a continuous succession of insurrections.

The ethnic problems in Myanmar, however, are still a point of major concern, having even given rise to changes in its political structure. The Burmans, who occupied the center in the union, maintained different historical relationships with each of these ethnic groups. Such historical processes are reflected in the present, complicating the matter even more.

This paper shows how to define the complex concept of ethnic group in a Southeast Asian society like Myanmar. Also we seek the fact that ethnic groups in Myanmar have experienced great alternations especially in their ethnicity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es—from the period of dynasties via the colonial rule to the nation-state—and continue to know of how ethnic conflict has been arisen in the nation-state.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전임강사

주소 : (608-738) 부산직할시 남구 우암동 산 55-1

Tel : 051-640-3125(O), 051-743-6584(H)